【서식 5】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저는 교직 생활 14년, 교육전문직 생활 8년 반 동안 걸어온 길을 **공감**, **전문성**, **도전**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리여자고등학교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겠습니다.

1.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나(2004.3.~2018.8.)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학기 초마다 학생 개개인의 꿈과 마음을 먼저 읽는 교사가 되려 했고, 무엇이든 기본부터 다시 배우는 교사이고자 했으며, 학생을 위해 필요하다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걷는 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① 공감: 한 아이의 마음도 놓지 않는 교사

첫 교단에 서며 제가 저에게 던진 질문은 '나는 이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습니다. EBS 강의로 수업 기술을 익히고 토의·토론 수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교과 성적을 끌어올리려 애썼지만, 정작 아이들을 움직인 것은 기술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평가에서는 잘 쓴 문장마다 밑줄을 그어 주었고, 과제로 낸 문제집 마지막 장에는 한 명 한 명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자신의 고민을 적어 오기 시작했고, 과제 검사는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학년이 끝나 갈 무렵 아이들의 글과 생각은 몰라보게 깊어져 있었습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알을 깨듯, 학생의 변화는 교사가 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② 전문성: 기본부터 쌓아 올린 진학지도

2006년 처음 고3 담임을 맡았을 때 저는 입시를 잘 모르는 교사였습니다. 담임의 판단 하나가 아이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입시를 가장 잘 아는 선배 선생님을 찾아가 기본부터 다시 배웠고, 아이들이 담임을 믿고 원서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배움은 11년의 고3 담임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입진학지원단과 대학교육협의회 상담팀에서 활동하며 도내는 물론 전국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했고, 그 경험은 다시 우리 반 아이들의 진학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진학지도의 전문성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한 해 한 해 쌓여 간다는 것을 그 시절에 배웠습니다.

③ 도전: 학교의 '처음'을 만든 용기

경력이 쌓일수록 '원래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 과연 아이들에게 최선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학년부장을 맡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 물음에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학급별 1박 2일 숙박형 종업식을 열었고, 학교 최초로 과학·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소규모 테마식 체험학습을 기획해 해남에서 강화도까지 답사했습니다. 이 체험학습은 아이들의 호응 속에 이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50분이던 점심시간을 90분으로 늘리자 운동장과 동아리실에 활기가 돌았고, 상설 동아리는 30개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던 과목과 소규모 강좌를 새로 열면서 '학교가 우리 이야기를 듣는다'는 믿음도 생겨났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은 지금과의 교실과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사이 아이들은 손글씨 대신 화면으로 소통하고, 입시와 교육과정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이 한 명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마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 관행에 질문하는 용기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2.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나(2018.9.~현재)

교실에서 학교를 바꾸는 일을 해 보니, 한 학교를 넘어 더 많은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한창 학교에서 일할 나이에 장학사의 길을 택한 이유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학교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들었고,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알기 위해 배웠으며, 행정의 벽 앞에서도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① 공감: 학교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듣는 행정

00교육지원청 00과장으로 일하며 직원들과 함께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학교가 어렵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힘들더라도 방법부터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00과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직원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부서였습니다. 부서 업무를 조정하고 절차를 정비한 끝에, 같은 인원으로 학교폭력 심의 처리 기간을 4개월에서 4주로 줄였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있던 민원은 크게 줄었고, 떠나고 싶던 부서는 오래 일해도 좋은 부서가 되었습니다. 요즘 학교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입니다.

② 전문성: 묻고 배워 익힌 정책과 예산

장학사가 되어 처음 마주한 정책과 예산은 교실과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정책과 사업 운영은 선배 장학사님들께 배웠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나이와 직급을 따지지 않고 가장 잘 아는 주무관님들께 배웠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끝까지 묻고, 더 나은 방법이 보이면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장학사 7년, 장학관 1년 8개월 동안 쌓은 이 경험으로 학교의 요구를 정책으로 담고, 그 정책을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00 학생 해외 진로캠프가 그 예입니다.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14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유일하게 2학년(일본)과 3학년(싱가포르) 해외 진로캠프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았습니다.

③ 도전: 처음부터 세운 학교안전 체계

새로 생긴 00과에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교육청 학교안전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촘촘한 안전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해 학교에 교부해주었고,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매뉴얼을 전면 개편해 보급하고 도내 안전주간을 새로 만들었으며 재난 발생 시 보고·운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3.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서의 포부 (2027.3 ~ 2031.2. 예정)

① 한 아이를 끝까지 보는 맞춤형 성장

문제집 끝 면의 짧은 편지가 하던 일을 이제는 학교 전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담임 한 사람의 내공에 기대던 진로·진학 지도는 교과·담임·진로 교사가 함께하는 지원체계로 바꾸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부터 대입까지 아이마다 다른 길을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여학생들은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열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느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② 자율에 책임을 더하는 학교 경영

자율형공립고 2.0의 자율은 책임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정책과 예산을 다뤄 온 경험을 살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자율성을 살려 지역·대학과 연계한 과목과 프로그램도 열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과정과 결과는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성과를 꾸준히 점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③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학교

00과에서 같은 인원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 부서를 살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학교의 어려움은 교장이 먼저 나서서 풀겠습니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 업무를 맡아 온 경험으로 학생과 선생님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사 시절 함께 책을 읽고 수업을 열던 학습공동체처럼, 선생님들이 함께 배우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아이 한 명의 마음을 읽던 교사로, 교육청에서 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풀던 행정가로 살아온 시간은 모두 좋은 학교를 향한 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이리여자고등학교가 함께해서 행복한 학교,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는 학교, 아이 한 명을 위해 힘들어도 한 발 더 내딛는 학교가 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때로는 든든한 지원자로, 때로는 길잡이로, 때로는 변화의 동력을 일으키는 리더로 그 곁에 서겠습니다.

【서식 6】

학교운영계획서

소 속		직 위		성 명	

Ⅰ. 학교교육 목표

멀리 내다보고, 함께 꿈을 꾸며 촘촘하게 준비하는 교육공동체

학생 - 마음 튼튼, 도전하는 학생 활동 지원

- 1학년부터 3개년 학업·진로 설계 로드맵 작성
- 학생 진로·진학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탐구형·미디어 독서 수행평가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남는 배움
- 취약과목 책임지도와 대학생 튜터링으로 '허리' 강화
- 방학 중 수학, 영어 학습 능력 향상 집중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마음 튼튼 프로그램 운영

교사 - 수업에 집중하는 교사

-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수업 연구 동아리 활동비 지원
- 탐구형 수행평가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 협약기관 방학 연수로 교사가 먼저 배우는 문화
- 악성·반복 민원 관리자 1차 대응으로 교권 보호
- 교직원 협의 중심 의사결정과 예산 자율 운영
- 교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유대감 및 안정감 증진

학부모 - 성장을 함께 보는 학부모

- 시험 후 D+7 영역별 피드백을 가정과 공유
- 누적된 학업설계서·성장 리포트로 근거 있는 상담
- 가정통신문·상담 예약·신청을 한 채널로 통합
- 공식 채널·상담 예약제로 서로 존중하는 소통
- 예비 신입생 학부모 프로그램·공개 성과보고회
- 입학 전 예비 신입생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 함께 키우는 지역

- 원광대·국가식품클러스터 중점 협약 교육과정
- KIST 전북분원·전북대 환경생명자원대학 탐구 멘토링
- 협약·운영위원회 연 4회, 관내 중학교와 성과 공유
- 익산시 교육경비·협약기관 현물·동문회 장학금 연계
- 학생맞춤통합지원·지자체 협력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학교운영계획서

Ⅱ. 학교 현황 분석

• 학급 수	- 학년당 8학급, 총 24학급(특수학급 1 포함)
• 학생 수	- 606명(1학년 194명 · 2학년 217명 · 3학년 195명)
• 자율형 공립고 2.0	- 2025년 8월 4차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 3월부터 5년간 운영
• 핵심 교육과정	- 보건 · 식품 · 과학을 융합 - 교외 공동교육과정 3과목(식품과학 · 화학실험 · 생명과학실험) 개설, 협약기관 참여 탐구 멘토링 시작
• 중점 협약기관	- 국가식품클러스터, 원광대학교
※ 출처: 2026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계획서, 학교알리미	

1. 최근 3개년 진학 결과가 시사하는 점

① 학업 역량의 씨앗 보유

- 의약계열 합격자 매년 배출, 거점국립대 합격자 3년 연속 증가
- 상위권 대학군 교과전형 지원자 절반 가까이 합격(내신 경쟁력)

② 역량 누수 두 지점

- 학생부종합전형 합격률: 교과전형의 1/3 수준, 3년간 하락(학생부 기록 부족)
- 수능 최저 미충족 탈락: 2년 새 급증(수능 기초 부족)

③ 진로 수요는 보건 · 생명 분야

- 매년 수시 지원의 1/5 내외가 간호 · 보건계열 → 자공고 지정 분야와 일치

2. 학업 성취도가 말해주는 것(2025년도 2학기)

① 핵심 과목 E단계: 1학년 공통영어 45%, 2학년 수학Ⅱ 43%, 3학년 사회탐구 50%대

② 전교생 40% 내외가 핵심 과목 60점 미만 → 학력 저하가 아닌 양극화

③ 과제: 중위권(허리)을 두텁게

3. 자율형 공립고 2.0 1년차 운영

① 1년차: 공동교육과정 · 협약기관 멘토링으로 특화 교육 출발, 예산은 동아리 · 교과 · 학년 특색 사업에 분산

② 과제: 교외에서 시작한 흐름을 교내 편제 · 교실 수업으로 내재화, 분산된 투자를 트랙 하나로 집중

학교운영계획서

4. SWOT 분석

강점 S	① 해마다 나오는 의약계열·거점국립 합격자와 교과전형에서의 경쟁력 ② 간호·보건·생명으로 이미 쏠려 있는 학생 진로 희망 ③ 자공고 2.0 지정으로 확보한 교육과정 자율권·예산·교사 초빙 특례 ④ 한 세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동문 기반
약점 W	① 좁은 학생부종합 통로: 수업 속 탐구가 기록되는 구조 부족 ② 성취도 양극화 ③ 특화 과목이 아직 교외 공동교육과정 단계 ④ 상위 자원 유입 감소(내신 1점대 비율이 3년 새 절반 수준)
기회 O	① 같은 도시의 원광대 메디컬 캠퍼스(의·치·한의·약·간호), 호남권 의약학 지역인재전형의 큰 비중 ② 연구 기능을 갖춘 협약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KIST 전북분원·전북대 환경생명자원대학 ③ 2028 대입에서 교과 세특 변별력 확대 → 수업 속 탐구가 곧 경쟁력 ④ 고교학점제 정착기
위협 T	① 익산 지역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유치 경쟁 ② 교원 수급을 학교가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 ③ 5년 후 자공고 예산 종료

5. SWOT 분석에 따른 학업 역량 향상 핵심 가치

① 수업이 먼저다 : 학업 역량은 프로그램이 아닌 수업-평가-기록 안에서 형성

② 일찍 알게 한다 : 1학년부터 자기 위치와 부족 영역을 알면 공부할 이유가 생김

③ 허리를 두텁게 : 상위권뿐 아니라 중상위권도 실질적 성과를 내는 학교

④ 있는 것을 활용 : 신설보다 재배치

⑤ 지역과 함께 : 원광대·국가식품클러스터·KIST·학부모가 교육과정의 일부

학교운영계획서

Ⅲ. 학교 교육과정 운영

1. 편성·운영의 원칙

① 교실 수업 속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

구분	기본 내용	세부 내용	비고
탐구형 수행평가	교과별 수행평가,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기마다 탐구형 수행평가 설계, 결과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에 기록 ●전문적학습공동체: 수행평가 설계 및 세특 품질 점검	전 교과 100% 트랙 과목은 협약기관 자원을 쓴 심화 탐구 1개 추가
미디어 독서 수행평가 3단계	독서 권장	●수업 안에서 독서하기 ① 핵심 도서 미디어 자료(저자 강연 등)를 수업 중 함께 청취·읽기 ② 짧은 문답으로 내용 이해 확인 ③ 주제 탐구 산출물을 교과 세특에 기록	교과당 학기 1회 이상 문해력이 수능 국어·영어 기초 다짐
취약과목 책임지도	기초학력 보정, 학부모 상담 연계	●학기 초 영어·수학 하위 20%를 성장 지원 대상으로 지정 ●교사 1:1 책임 상담·과제 점검 ●원광대 사범대·간호대 학생 소그룹 튜터(1:4, 주2회)	1·2학년 핵심과목 E단계 20% 이하
수능 최저학력 기준관리와 진학 정보	전교생 진학상담	●1학년부터 최저 기준으로 진학 가능한 거점국립대·지방 사립대 정보 안내 ●6월 모의평가 후 최저 필요 학생 과목별 집중반 운영	최저 미충족 절반 이하, 교과전형 합격 학생 증가
고정 탐구 시간	고교학점제 공강	●주 1회 전교생 고정 시간: 상위권 심화 탐구, 성장 지원 대상 튜터링	고정 시간에 학교 문화로 정착

학교운영계획서

2. 학업 역량 – 수업 안에서 만든다

① 2028 대입에서 대학이 주목하는 교과 세부특력 및 특기사항은 수업·평가 안에서 만들어짐

② 교사의 추가 업무는 '수행평가 하나를 탐구형으로 전환'으로 한정

③ 관리 지표: 세특 분량이 아닌 탐구형 수행평가 운영 교과 비율

(1년차 50% → 3년차 100%)

3. 진로 설계 – 1학년부터 자기 길을 설계한다.

① 3학년이 되어서야 자기 위치를 아는 구조 탈피

② 1학년부터 부족 영역과 목표 대학까지의 격차 제시 → 공부할 이유 부여

가. 바이오·메디컬 융합 트랙 – 보건·식품·과학 융합의 심화형

: 보건·식품·과학을 생명과학 기반의 '바이오·메디컬'로 묶어 한 트랙 안에서 두 깊이로 운영

나. 3개년 학업·진로 설계 로드맵



학교운영계획서

다. 영역별 피드백과 목표 역산 리포트

① 중간·기말·모의평가 후 7일 이내 제공: 점수·등급이 아닌 내용·행동 영역별 약점과 다음 행동(추천 탐구 과목, 멘토링 배정, 보충 단원)

② 목표 대학·전형 기준에서 역산해 과목별 향상 목표를 수치로 제시

③ 학교 표준 서식·시스템으로 생산(교사 별도 작성 없음)

라. 성취도 기반 탐구 과목 추천

① 학기마다 강점 과목·희망 전공을 연결한 탐구 과목·주제 추천

→ 탐구형 수행평가·트랙 심화 탐구로 연계

② 전공적합성과 학업역량을 한 흐름으로 세특에 기록

③ 취약 과목은 책임 멘토, 강점 과목은 탐구 추천으로 지원

4. 창의적 체험활동·기초학력·인성(민주시민)·디지털 교육·체육예술교육

- 정규 교육과정 안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질 제고

① **창의적 체험활동**: 과학·간호·식품 동아리를 트랙 탐구 단위로 운영, 진로활동은 3개년 로드맵(진로 집중학기·박람회·학업설계서)에 통합, 협약기관 연계 탐구는 자율·진로활동으로 운영해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록

②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중심, 별도 프로그램 없이 진단-지정-책임-튜터링 일원화

③ **인성·민주시민**: 수업 속 토론·협업(탐구형 수행평가 모둠 활동), 학생자치회 실질 권한(협약위원회 배석, 학교 규칙 개정 참여), 회복적 생활교육, 사제동행 미디어 독서

④ **AI·디지털 교육**: 별도 과목이 아닌 도구로 활용(자료 분석·영역별 피드백·학업설계서), 디지털 시민성·정보 윤리는 정보·사회 교과와 연계

⑤ **체육·예술**: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충실히 운영

학교운영계획서

Ⅳ. 학교 교직원 관리 및 지원

- 교장의 역할: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움직일 시간과 여건 마련
- 출발점: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 교권 회복: 구호가 아닌 수업·평가·기록에 집중하는 구조
- 기대 효과: 교사 만족·수업의 질 향상 → 학생 성장·학부모 만족 → 5년 후 학교의 질 변화

1. 수업 집중 환경 5원칙 – 업무 경감과 교권 보호

5원칙	세부 내용
① 연구 시간 배정	●교사 연구 시간을 시간표에 배정(회의·출장·행사 금지)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수행평가 설계·세부능력특기사항 정리 공유
② 교무행정팀 전담	●공문 접수·배부, 취합, 가정통신문, 공모 신청서는 교감·교무실무사·자공고 행정 인력이 처리 ●내부 규정으로 교사 기안 대상을 수업·평가·생기부·안전사고 보고로 한정
③ 수합 제로 및 행사 총량제	●설문·동의서·신청은 통합 알림 체계로 학부모가 직접 입력 ●연간 행사는 연초 확정, 행사 추가 시 기존 행사 폐지
④ 단일 창구	●학부모 연락은 학교 공식 채널로 일원화, 상담은 예약제 ●근무시간 외 응답 의무 없음을 학부모에게 공식 안내 ●악성·반복 민원은 교장·교감이 1차 대응
⑤ 도구 큐레이션 +수업 설계 클리닉	●영역·문항 분석, AI 코스웨어, 루브릭 채점 등 시중 도구 3~4개를 학교가 선정·구독 ●학기당 1회 교과협의회에 교장·교감·전문가 참여, 탐구형·미디어 독서 수행평가 설계 나눔
보조 과제	●담임 수업시수 1~2시간 경감 ●보고 양식 통일, 전년도 파일 재사용 ●전달성 회의 폐지, 2월 새 학년 집중 준비 2주 확보

2. 교원 전문성 신장

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비 지원: 교과별 탐구형 수행평가 설계와 세특 기록 점검

② ‘수업 설계 사례’ 우수자 시상, 공개 성과보고회에서 사례 발표

③ 협약기관 교사 연수: 원광대·국가식품클러스터·KIST 전북분원 방학 연수로 교사가 먼저 체험

④ 결원 시 초빙: 화학·생명과학·정보 표시과목 우선, 산학겸임교사는 트랙 심화 탐구에 한정

⑤ 전 교직원 대상 선도학교 탐색 프로그램 운영

⑥ 교직원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유대감·안정감 증진

3. 합리적 의사결정과 신뢰 행정 구현

① 2월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에 전 교원이 1년 설계 완료, 3월부터 수업에 집중, 중요 사안은 교직원 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②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장 리더십 360° 평가·모니터링

③ 학년·부서 중심 예산 자율 운영 체제 구축

Ⅴ.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1. 지역연대 - 지역이 함께 키운다.

① 고유 자산: 같은 도시의 원광대 메디컬 캠퍼스(의·치·한의·약·간호), 호남권 의약학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큰 지금 이런 여건을 갖춘 여고는 드뭄

② 연구형 협약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KIST 전북분원·전북대 환경생명자원대학

③ 지역은 체험 장소가 아닌 교육과정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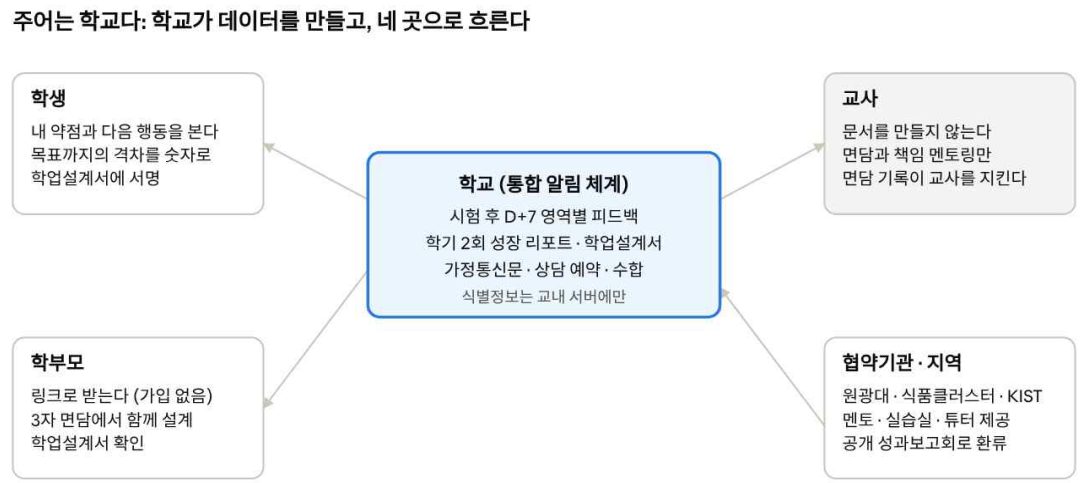
가. 협약·운영위원회 재구성

- 정기회 연 4회 중 1회는 공개 성과보고회로 운영
- 익산 관내 중학교 교장·진로교사 초청

나. 학부모와의 소통 - 학교 주도 성장 데이터 소통 프로세스

- 학교가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함께 설계

학교운영계획서



다. 통합 알림 체계 - 기능 요건

* **교사의 추가 노력 없이 운영되는 기반, 특정 제품이 아닌 기능 요건으로 정의하고 교육청 절차에 따라 보조 도구 선정**

- 교사가 문서를 만들지 않아도 학생·학부모와 연결
- 시험 후 D+7 영역별 피드백 자동 발송, 가정통신문·시간표·진로검사·상담 예약·수합을 한 채널로 통합(문자·메신저 링크 접근, 별도 가입 없음)
- 1학년부터 성장 리포트·학업설계서를 한 화면에 누적해 상담 자료로 활용
- 단계별 구축: 1년차 피드백·가정통신문 통합→2년차 진로검사·학업설계서 누적 → 3년차 탐구 추천 자동화

2. 예산 운영과 확보 - 있는 것으로 바꾼다.

① 자공고 2.0 지원금(교육부·교육청 각 1억 원, 연 2억 원)은 트랙과 학업 역량에 집중

② 교과·동아리·학년 특색 사업은 유지하되 재원을 학교기본운영비·교육청 목적사업비로 이관

③ 익산시 추가 지원 등 증액분은 기초학력 보장에 우선 배정

④ 재원 연계: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도교육청 고교학점제·기초학력 목적사업, 협약기관 현물 지원(실험실·강사·차량), 동문회 트랙 장학금·진로 멘토

3.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용도의 재배치)

① 실험실: 2년차 교내 과목화 전까지 기존 과학실을 트랙 실험용으로 정비, 고가 장비는 협약기관 실습실 활용

② 고정 탐구 시간 공간: 도서관·공유교실·교과교실을 탐구·튜터링 공간으로 지정, 예약제 운영

학교운영계획서

Ⅵ. 자체 평가 및 환류 계획

- 평가 체계: 교육부 자공고 2.0 공동지표(100점) + 학교 핵심지표 2개 + 선행지표 4개
- 선행지표 도입 이유: 입시 결과는 3년차 이후 나타나므로 1~2년차 진행 상황 점검 필요

○ 핵심 지표(2), 선행지표(4)

구분	평가 지표	1년차	2년차	3년차
핵심A	상위권 대학군 학생부종합 합격률	15%	22%	30%
	거점국립대 이상 합격 학생	현재 수준 (1.0배)	1.2배	1.5배
핵심B	1·2학년 핵심과목 E단계 비율	40%대	30% 이하	20% 이하
선행 ①	탐구형 수행평가 운영 교과 비율	50%	75%	100%
선행 ②	1학년 3개년 학업설계서 작성률	100%	100%	100%
선행 ③	신입생 내신 1점대 비율	4.5%	6%	8%
선행 ④	시험 후 D+7 영역별 피드백 발송률	100%	100%	100%

○ 보조 지표: 수능 최저 미충족 건수, 식품·바이오·간호 계열 거점국립대 이상 합격, 협약기관 참여 수업 시수,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 환류 절차

① 학기 말: 교과협의회가 탐구형 수행평가 운영과 세특 자체 점검 → 다음 학기 설계에 반영

② 연 1회: 공개 성과보고회에서 지표 결과 발표, 학생·학부모·지역 의견을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③ 연 2회: 협약·운영위원회가 지표로 진행 상태 점검, 협약기관 연계 과제 조정

④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 전 교직원이 1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계획 확정

※ 지표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을 늘리지 않고 설계를 바꿈